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3.10.(월) 20:00 < 3.11.(화) 조간 > 배포 2025. 3. 10.(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브뤼셀 현지에서 무역위원회 공동 주재
- 한-EU FTA 이행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교역·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3.10.(월)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국측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으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약 20여명의 한국 대표단과 EU통상총국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부총국장 등 EU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협정 제1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 협의체이며, 무역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SPS*(지역화, 쇠고기), ▲자동차 및 부품(부속서 검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시장접근 이슈(해상풍력, 배터리 시장, 전기전자,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리고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검토를 우리측은 요청하였으며,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EU 시장접근 문제도 언급하였다.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 ** 한-EU FTA 부속서 2-다 제3조 라항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 (Committee on Emerging Trade and Economic Issues)'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번 무역위원회 계기에 지난 '23.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의 협상 타결을 확인하였다.(향후 법률검토 등 국내 절차 진행 예정)

정인교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온 바,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정다연 (044-203-5666)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사무관	박경은 (044-203-4891)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박문일 (044-203-426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940)
		담당자	주무관	이주혜 (044-203-5946)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희중 (044-201-2071)
		담당자	사무관	최미루 (044-201-2080)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장현석 (044-202-7129)
		담당자	사무관	박민정 (044-201-7021)
	환경부 국제환경협약팀	책임자	팀 장	강부영 (044-201-6600)
		담당자	사무관	권영미 (044-201-660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담당자	사무관	최용관 (044-201-3850)
	과학기술부 전파기반과	책임자	과 장	윤희봉 (044-202-4950)
		담당자	사무관	김인 (044-201-4957)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책임자	과 장	정병락 (043-870-5540)
		담당자	사무관	고영노 (043-870-5356)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담당자	사무관	박성배 (044-203-48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